주간 테러동향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1. 3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獨, 新나치 무장조직 '콤바트 18'* 활동금지 조치

- 1.23 獨 내무부는 동부 튀링겐州 등 6개 주에 분포한 新나치 무장조직 '콤바트 18'을 '국가사회주의와 유사한 新나치주의·인종주의·외국인 혐오주의 단체'로 평가하고, 조직 활동 금지 조치 및 주요 거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발표(조직원은 약 20여명으로 추산)

  * '92년 영국에서 창설된 조직으로, '17.9월 체코에서 독일로 총탄을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, 극단주의 내용의 음악 전파 및 콘서트 조직

○ 英 경찰, 런던에 실시간 얼굴인증 시스템 도입

- 1.24 영국 경찰청은 범인·행방불명자 식별을 목적으로 실시간 얼굴인증이 가능한 LFR*을 런던시내에 도입한다고 발표, 이에 대해 인권단체는 "시민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확대"라고 비판

  * Live Face Recognition(실시간 얼굴인증) : 일본전기주식회사(NEC)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웨일스 카디프, 미국 조지아주, 인도 스라트에서 사용중

미 주

○ 美,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신임 사령관도 암살 경고

- 1.23 스위스 다보스에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「브라이언 훅」 美 국무부 특사는 사우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"이란의 「에스마일 거니」 신임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국인을 죽이는 똑같은 길을 간다면 「솔레이마니」와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"이라고 경고

○ 美 - 아프간, 美 군용기(E-11A) 추락에 대한 엇갈린 주장

- 1.27 탈레반은 자신들이 美 군용기를 전략적으로 격추했다고 주장한 반면, 미군은 격추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비 조사결과 기계적 결함을 확인했다고 반박

중 동

○ **레바논, 헤즈볼라의 지지받아 新정부 출범**

- 1.22 WSJ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무정부 상태인 레바논이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지지를 얻어 「하산 디아브」를 신임 총리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으나, 국제사회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*이 있을 것이라 평가

  * 美정부가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, 수니파 맹주 사우디가 헤즈볼라의 레바논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는데 기인

○ **팔레스타인 하마스, 「트럼프」 '중동평화안'*에 대한 새로운 투쟁 예고**

- 1.28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「트럼프」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·야당 대표와 회담 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'중동평화안'을 공개하자, 이는 공격적이며 많은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 경고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투쟁을 예고

  *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서안(West Bank)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東예루살렘 외곽에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

아 · 태평양

○ **日, 도쿄올림픽 대비 고속철도 승객 수하물 검사 예정**

- 1.24 日 현지언론은 고속철도 운영사인 JR '히가시니혼'과 '도카이'가 도쿄올림픽(7.24~8.9)을 앞두고 도쿄역 등 주요역에서 테러예방대책 일환의 승객 수화물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

  * '64년 신칸센 개통 후 첫 수화물 검사로 탐지견 이용 폭발물 식별 예정

아프리카

○ **나이지리아, 북동부지역 테러*로 UN 구호물품 배급 차질 우려**

- 1.29 UN은 연초부터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보코하람 등 테러단체 활동이 활발해지고, 구호단체 등 인도주의자에 대한 공격이 심화됨에 따라 구호물자 배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

  * 지난 10년간 약 300만 명의 이재민과 36,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

역사 속 테러사건

Weekly Terrorism Trends

필리핀, 술루섬 성당 연쇄폭탄테러

○ '19.1.28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인근 술루섬 홀로市의 카멜대성당에서 연쇄폭탄테러가 발생, 20명 사망 및 110여명 부상

- 일요일 미사가 진행중이던 성당 안에서 사제폭발물이 1차 폭발한 후, 軍·경찰이 현장에 사건 조치를 위해 도착한 시간에 맞춰 2차 폭발이 발생

○ 사건 직후 IS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, 同 지역이 ISIS 추종단체인 필리핀 테러단체 '아부사야프'(ASG)의 핵심거점이라는 점에서 同 단체 소행인 것으로 추정

○ 필리핀 보안당국은 필리핀 정부와 온건 반군인 MILF(모로이슬람해방전선)간 이슬람자치정부 추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경 독립세력인 '아부사야프'의 반발 표출로 분석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아부사야프 그룹(ASG) >

■ **(결　　성)** '검을 가진 아버지'라는 뜻으로,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(MILF)간 평화협상 추진에 반발한 MILF 일부 세력이 민다나오지역에서 '91년 결성

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년), UN·영국('01년), 캐나다('03년)

■ **(목　　표)**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에 이슬람 독립국가 건설

■ **(조직규모)** 400여명('15년 필리핀 보안당국 추정)

■ **(활동지역)** 민다나오섬 잠보앙가, 술루섬 등

■ **(참고사항)** △ISIS 필리핀 지부('16.4월 선언)의 핵심세력이며, △제마이슬라미야(JI)와도 자금·조직원·테러수법을 교류, 규모는 작으나 필리핀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위협적인 조직으로 평가, △'15년 이후 선박 등 납치로 조직자금을 조달하면서 필리핀 해역이 아프리카에 버금가는 해적활동 지역화